

네 개의 창문

Four windows

글. 성윤석 _ Seong, Yoonseok / 시인

나는 네 곳에서 성년을 보냈다. 그것은 먹고 사는 일과 함께 있었다. 지방일간지 기자 시절엔 극장에서 살았고 묘지관리인 시절엔 공중묘지에서 살았다. 화학사업을 하는 동안엔 작은 실험실에서 살았고 어시장 잡부 시절엔 부두에서 살았다. 이 네 곳엔 다 기억할만한 창문들이 있었다.

극장

문화부 기자 시절 나는 영화를 담당했지만, 사실은 영화 보다 더 먼 곳을 담당하고 싶었다. 그 먼 곳까지 많은 걸 감수하고서라도 가고 싶었다. 대형 스크린이 하나 있는 옛 극장들. 3층 객석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길고 높은 복도엔 늘 공중 화장실 냄새가 스며 나오던 곳. 90년대의 극장은 그랬다. 벽엔 굳게 닫힌 창문에 거미줄이 영겨 붙어 있고 3분 동시상영까지 하던 지방의 대형극장들. 나는 영화를 보며 먼 곳들을 마음껏 상상하고 내 마음이 가는대로 시나리오를 바꿔보기도 하며 살았다. 극장 속에 영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 극장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다시 찾은 해안도시의 수많은 극장들은 단 한 곳도 필름을 돌리는 곳이 없었다. 그 대신 소규모의 객석을 갖춘 여러 상영관이 대형건물에 포진해 있었고 옛 극장들은 대부분 아직도 팔리지 않은 채 굳어 굳어 금 가고 깨진 유리창을 겨우 안고 있었다. 극장이 영화를 소유하던 시대가 끝나고 영화가 극장을 소유하는 시대가 온 것이었다. 더불어 내 청춘도 끝났음을, 나도 늙어가고 있음을 옛 극장들의 폐허에서 깨달았다.



공중묘지

시립묘지를 위탁관리했다. 수많은 묘지들 속에 있는 무연고묘지들에 더 마음이 갔다. 더 정성껏 벌초했다. 묘적부라는 게 있었다. 묘지 지도였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으며 아파트 단지처럼 구역이 나눠져 있었다. 삶과 죽음에서 다른 것은 창문이 있고 없고 였고 건축양식이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 였다. 죽음의 거처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산역꾼이 대부분인 직원들과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무덤 파는 일도 했다. 파주 일대 무연묘 묘지공사(이러려면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무연고 묘지가 있는 야산이 가로 막고 있으면, 행정예고를 한 뒤 묘지 개장공사를 입찰에 부친다)를 낙찰 받아 산역꾼 대여섯 명과 02 포크레인인을 불러 했다.

개토제를 지낸 뒤 무덤 개장 공사에 들어갈 때 포크레인이 무덤을 파헤치고 관이 드러나면 나를 비롯 산역꾼들이 삽을 들고 뛰어들며, 죽은 자의 관을 부순다. 삽날로 죽은 관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은 동티를 예방하기 위한 것. 무덤 밖에서는 나머지 인원들이 관과 한지를 준비하고 유골을 수습, 누워있던 그대로 꺾맞춘다. 그리고 화장장으로 간 뒤 납골당으로 모시면 이장은 끝나게 된다. 가끔 꿈속에 나타나는 한 장면. 명당인진 모르겠지만 살과 뼈가 모두 썩어 사라졌는데, 뇌수술한 자국의 머리 윗부분, 어떤 거죽뚜껑 같은 머리칼이 몇 가닥 붙어있는 머리가죽, 수술한 바늘 땀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을 손으로 달랑 들고 나오던 때. 아마도 그 부분을 도려내고 독한 약품에 넣어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내 속셈은 거친 산역꾼들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그 부분만 한지에 싸서 관에 넣고 화장장으로 가며, 하루는 내세를 믿고 하루는 믿지 말자고 중얼거렸다.

실험실

포르말린 냄새, 특수장갑, 특수안경, 독성물질과 착한 원소들. 13년 화학사업 말미 쯤 작은 실험실에 있었다. 그곳은 사무실 공간을 잘라 만든 것이었는데 통유리창이 있었고 통유리창 아래 작은 창문이 또 있었다. 나는 영국 회사에서 온 수지 샘플로 원두커피 찌꺼기를 블록으로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상온에서 30분, 한 시간 또는 전기가마에서 30분 한 시간. 계량기에 수지의 양을 체크하고 제품 개발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른다. 낮이 밤이 되어 있기 일쑤. 화학자들을 존경하기 시작했다. 같이 일하던 화학자 박상무님과 우레탄 폼을 만드는 실험이 가장 기억난다. 별건 아니다.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 수지를 1:1의 비율로 섞어 종이컵에 부으면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부풀어 오르는데 굳으면 우레탄폼이 되는 것. 반응도중 열이 100도까지 올라, 잘 활용하면 라면도 끓일 수 있다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우리의 실험은 불이 붙었을 때 포름알데히드 및 유해화학물질 0%의 수지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금 생각하면 연금술에 가까웠다. 실패했다.

어시장

부둣가 냉동 창고에서 3년 반을 일했다. 냉동 창고에는 창문이 없다. 냉기를 24시간 가둬 두어야 하는 곳. 전 세계에서 수입 되어 온 250여종의 바다생선들이 얼어있는 곳. 종이박스나 종이푸대에 담겨져 있는데 30Kg까지 나가는 것들도 많아 일은 고된 편. 새벽 네시부터 저녁 여섯시까지 냉동 창고를 오가며 일했다. 창문이 없으니, 어찌다 갇히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영하 18도에서 사람이 얼어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리프트가 고장 나 이층에서 몇 번 갇혔다. 개구멍을 찾아 일층으로 내려와 냉동 창고 문을 두드려 탈출했지만, 휴대폰이 잘 안 터진다. 3년쯤 하면, 독주를 마시고 외투를 입은 채 들어가 한 숨 자고 나오기도 했다.

여름엔 좋은 피서지다. 중소매상들이 찾아와 국산을 찾지만, 국산은 거의 없다. 근해에 나가 보라. 생선이 있는지. 기껏해야 오징어, 고등어다. 갈치는 전 세계에서 온다. 세네갈,



모잠비크, 모리타니아, 중국 등등. 부산 선사들이 몇 군데 사라진 건 바다에 생선들이 줄었기 때문이다. 서부아프리카 바다를 50년간 파먹었다고 한다.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황금어장은 이제 동부아프리카 앞 바다 뿐이다. 마다카스카라 섬이 있는 곳. 아침마다 경매가 이뤄지는 마산 수협 공판장에 오징어가 주로 온다. 활기를 잃은진 오래. 폐허만 남은 인류의 앞날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낀다. 앞바다 아침햇살은 나날이 새로워지지만 수협건물은 낡아 뿌연 유리창엔 먼지만 가득하다. 뒤는 감춰지만 앞 풍경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게 창이겠는가.